Vol.겨을

꽃섬에서 온
겨울 편지

꽃섬 남해

NAMHAE ESSAY_ 남해에서 온 엽서

SPECIAL ISSUE_ 남해읍

SEASONS ISSUE_ 남해 해넘이&해맞이 명소

HIDDEN SPOTS_ 겨울 실내 여행지

NAMHAE TRAVE_ 골목여행 스페셜

표지사진_겨울 보리암

꽃섬 남해

NAMHAE ESSAY : 꽃섬 남해
남해에서 온 엽서

SEASONS ISSUE : 남해읍 구석구석 골목길 여행
남해 바닷길 | 남해읍내 바래길 | 어린왕자 골목길
동문안 전래놀이길 | 동문안 새미길 | 군청 앞 먹자골목 | 회나무소원거리

LOCAL ISSUE : 남해읍 핫플레이스 소문난 맛집
국밥 | 백반 | 육고기 | 중국 음식 | 카페 & 브레드 | 남해 별미 | 남해읍 외곽 맛집

SEASONS ISSUE : 남해 해넘이&해맞이 명소
해넘이 명소 사촌해수욕장 | 설리스카이워크 | 지족 노을
해맞이 명소 보리암 | 미조항 | 물건리 방조어부림

HIDDEN SPOTS : 겨울 실내 여행지
이터널저니 | 화전어린이도서관 | 보물섬식물원 | 남해탈공연박물관

NAMHAE TRAVEL : 골목여행 스페셜
남면사무소 앞 엄마길 | 서상숲길 이색공간 | 지족 구거리

MOVIE TRAVEL : 영화 〈노량 : 죽음의 바다〉

겨울 남해의 매력은 골목 여행입니다

한해 열두 달을 온전히 채워 보내는 12월이 되면 그리움과 아쉬움이 아득하게 밀려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르고 목표를 이룬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도 스쳐 갑니다.
이제 남해 바다를 향해 아쉬움은 놓아주세요. 그리고 솟아나는 햇살을 바라보며
새로이 만날 2024년의 소망을 떠올려 보는 겨울 여행을 남해 골목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남해는 상주해수욕장, 보리암, 미조항 등 유명한 관광지가 많지만, 이번 겨울에는 구석구석 남해읍을 걸어보세요. 겨울이어도 초록의 시금치밭을 볼 수 있고, 군청 앞 먹자골목에서 푸짐하고 따끈한 국밥 한 그릇과 남해전통시장에서 싱싱한 활어회도 드셔보세요. 천천히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남해읍내 골목을 타박타박 걸어보세요. 어린왕자길, 남해의 봄날길, 동문안 전래놀이길, 동문안 새미길, 회나무 소원거리 등 아름다운 벽화와 테마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추억의 골목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남해의 골목길을 걸으면서 우리 안에 뒤섞여 놓인 것들을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쓰일 희망을 꺼내어 보기에 이곳 남해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요? 맛있는 남해에서 국밥, 백반, 고기, 활어회까지 맛있게 드시고 회나무 소원거리에서는 소중한 소원을 빌어보면 좋겠습니다.

상점

겨울 남해읍의 최고 매력은

구석구석 골목길 여행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어릴 적 노래를 흥얼거리며 동무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던 골목길에 대한 추억은 정겹고 아련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해넘이 여행지로 남해가 딱이다.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눈부신 바다가 펼쳐지고.
골목마다 풍미가 가득한 맛집이 즐비하다. 남해 읍내에서 골목 산책도 즐기고
맛있는 진수성찬도 꼭 먹어보자.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한
남해 읍내의 골목을 타박타박 걸어보자.

01

겨울 철새의 놀이터, 남해 바닷길

여행팁

시작점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33-35

한겨울 남해에서 가 볼 만한 곳을 추천하라면 남해읍에서 가까운 '남해 바닷길'이다. 선소리 조망대를 시작해 습지와 호수를 한 바퀴 돌고 난 후 쇠섬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3.8km 도보 1시간이면 생태 여행의 진수를 맛보게 된다.

바닥은 폭신한 흙길, 난간을 따라 걷게 되는데 양쪽에 억새와 갈대가 바람에 일렁인다. 저 멀리 망운산과 남해 읍내의 아파트가 조망된다. 이 길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천과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철새를 감상하는 탐조 길이기 때문이다. 하천이 강진만 바다로 빠지기 직전이기에 민물고기가 많고 갯벌의 조개까지 풍성해 새들이 찾아온다. 특히 습지는 철새들의 놀이터다. 엄청난 크기의 큰고니는 비행기의 이륙을 보는 듯해 숨죽이며 지켜본다. 특히 주황색 부리를 가진 검은머리물떼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귀한 새다. 도요새는 물론 보기 힘든 노랑부리저어새, 황새까지 볼 수 있는데, 곳곳에 성능 좋은 망

원경과 가림막인 탐조대까지 있어 새들의 움직임을 훔쳐보기 딱 좋다. 벤치에 앉아 캔 커피 한잔하면서 바람을 맞으면 딱 좋다.

습지 길을 타박타박 거닐다가 다시 바다로 나오면 갈매기 형상의 선소리 조망대를 만난다. 강진만은 어머니를 닮았기에 이곳에 오르면 어머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따사롭다. 오른쪽에 예쁜 섬이 하나 보이는데 쇠섬이다. 학창 시절 남해 사람들의 소풍 장소이자 많은 연인들의 첫 키스 장소였다고 한다. 섬이지만 방파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양쪽은 천연 갯벌로 굴이 자란다고 한다. 이 작은 섬에 팽나무, 소나무 등 고목이 울창한데 안쪽에 평상과 테이블이 있어 다리품 팔기가 좋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을 입증하듯 남해읍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보석 같은 길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새들과 함께 훨훨 날아가는 기분으로 이 길을 걸어 보길 바란다.

02

속살 같은
남해 읍내 바래길

여행팁

시작점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35 남해공용터미널

'바래'라는 말은 남해 어머니들이 가족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 바닷물이 빠지는 물때에 맞춰 갯벌에 나가 파래나 조개, 미역, 고둥 등 해산물을 손수 채취하는 작업을 일컫는 남해 토속어이다.

바래길은 20여 개 코스의 240km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는 걷기 길이다. 그중 읍내 바래길은 남해공용터미널을 시작으로 남해향교를 지나 남해성당을 거쳐 봉황산 나래숲공원을 지나게 된다. 백로가 많아 이름 지어진 학림사를 지나 봉황산 숲길을 지나면 남해읍 최고의 경관으로 불리는 아산저수지 둑길을 걷는다. 이후 만나는 오동리 다랭이 논 곁을 지나 마을 길을 지나면 읍민들의 쉼터인 남산공원을 지나 유배문학관에 다다른다. 이후의 길은 청년창업거리와 남해어시장을 지나 다시 시작점인 남해공용터미널로 돌아오는 원점회귀형 코스다. 총 10km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남해바래길 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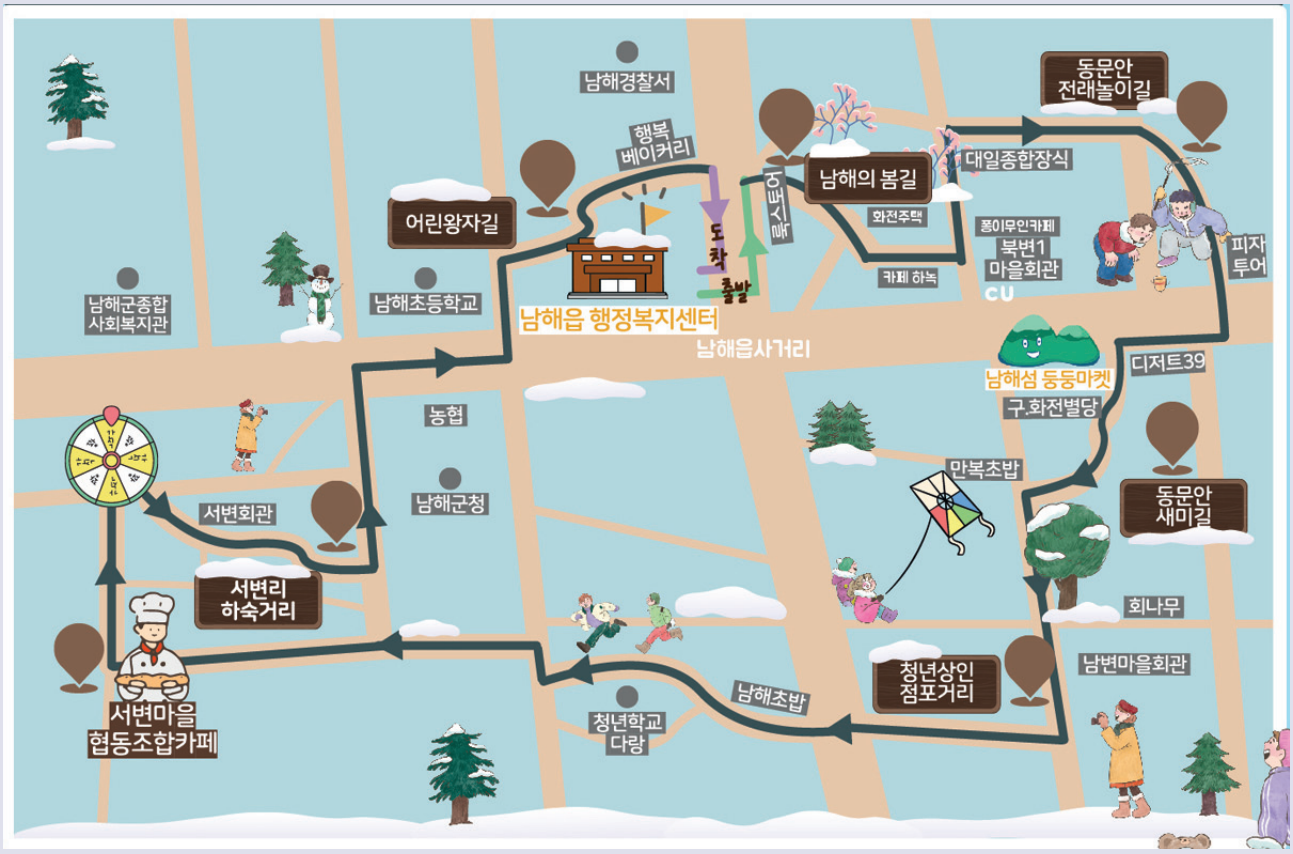
특히 이 길은 남해성당, 남해향교, 법흥사를 지나가는 '3대 종교길'이기도 하다. 남해성당은 정삼각형 형태의 지붕이고 그 위에 작은 십자가서 있으며, 그 아래쪽에 피에타상이 놓여 있는 독특한 구조다. 고즈넉하면서도 절제된 남해향교는 오늘날까지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오래된 유자나무까지 있어 향이 짙다. 도심 속 사찰 법흥사는 불교 대중화의 산실이며 도심의 휴식 공간으로 탁 트인 경관이 자랑이다. 남해전통시장은 제철 회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남해읍 이색 골목길 여행

남해읍내는 추억이 가득한 골목길이 많다. 현지 주민들이 참여해 골목길을 조성하고
남해의 4계절과 전래놀이를 담았다. 추억의 간식을 먹고,
전래놀이를 벽화로 새겨놓은 곳이 있다. 남해읍내 골목길을 유유자적 걸으며
테마가 있는 골목길 탐험을 즐겨보자. 남해의 봄날, 동문안 전래놀이길,
동문안 새미길, 군청 먹자골목, 어린왕자길을 순서대로 따라 걸으며
재미가 가득한 기념사진도 폼나게 찍어보자.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여행팁

시작점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7 행복베이커리 옆

03

남해읍
이색 골목길 여행

1 어린왕자 골목길

남해초등학교와 남해경찰서 사이 골목길. 낡은 담장에 꽃과 마차 등 동화 속 이미지를 그려 놓아 아이들은 원색의 그림을 보며 꿈을 키울 수 있으며 어른들은 유년의 추억을 되새겨 보기 좋다. 길 초입에 어린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온 유퀴즈의 주인공 김쌍식 제빵사의 행복베이커리가 있어 아이들이 빵을 들고 등교하는 모습까지 만나 볼 수 있어 정겹다.

2 회나무 소원거리

거리 중심부에 500년에 달하는 회나무 한그루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나무 근처에는 팔선녀 포토존이 있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 거리에는 에이티즈 최산의 이모가 운영하는 국밥집, 유명 호텔 요리사가 운영하는 고깃집, 막창, 보쌈과 노포 감성이 서린 갈빗집까지 육류 맛집이 즐비하다. 아래쪽에는 청년상인점포가 있다. 회나무 양복점은 양복점 인테리어를 가진 식당이다. 그 밖에 재미있는 카페와 공방이 가득하다. 큰별돈까스 옆에 있는 꽃 창문은 포토존으로 인기 있다.

여행팁

시작점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길 22
밀양돼지국밥 앞

3 동문안 전래놀이길

딱지치기, 윷놀이, 구슬치기, 오징어놀이까지 벽화를 통해 유년 시절 집 앞 골목길의 추억과 동심의 시간 여행을 즐기게 된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윷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윷이 있으며 지게발로 골목길을 걸어 볼 수 있고 굴렁쇠를 굴려 보기도 한다. 실뜨기 벽화까지 디테일이 살아 있다.

여행팁

시작점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가길 24 대일종합장식 옆

4 동문안 새미길

새미는 '우물'을 뜻한다. 남해읍성의 동문 안쪽은 읍민들의 식수를 책임졌던 우물이 있던 정겨운 골목이다. 새마을 운동 때는 골목 안길과 도랑을 정비하기 위해 북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작업했다고 한다. 망운산 진달래, 나비생태공원 등 남해의 봄과 내산단풍길, 물미해안도로 등 남해의 가을을 담은 대형 벽화를 볼 수 있다.

여행팁

시작점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12-1
디저트39 옆

☀ 여행팁

시작점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17 단골집 앞

5 군청 앞 먹자골목

남해에는 회나 멸치쌈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노포가 즐비한데 특히 군청 앞 골목은 오랜 연륜을 가진 맛집들이 즐비하다. 백반기행에 소개된 '단골집'은 남해 식재료로 사용한 남해 백반 한상차림이 가득하며, 동은기사식당은 된장찌개, 김치찌개와 두루치기가 일품으로 오래전부터 지역민들이 즐겨 찾는 집이라고 한다. 중국집과 국밥집도 점심시간이면 만석인 만큼, 푸근한 정을 느끼며 한 끼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군청 앞 먹자골목을 거닐어라. 한옥을 문화공간으로 꾸민 남해청년센터 '바라'도 있으니 식사 후 쉼표를 찍어도 좋겠다.

백반(집밥)
된장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
생선구이
단골집
1-15
863.2239

입에 착착 붙는 남해의 소문난 맛집

남해읍은 먹거리 천국이다. 남해시장을 비롯해
골목골목 착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장 주변과 군청 주변은 특히 소문난 맛집이 몰려 있다.
양도 푸짐하고 맛도 좋은 남해의 진짜 맛집을 소개한다.

아산리
아산저수지
봉강산
남해전통시장
천주교 남해교회
남해읍행정복지센터
화전어린이도서관
남해경찰서
화전도서관
남해초등학교
남해공용터미널
남해제일고등학교
남해중학교
경남도립대학
남해군청
서변리
창원지방법원
남해군법원
남해도서관
남변리
섬마을해물칼국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남해 맛 지도

1 왕창국밥
2 모퉁이분식
3 복례가마솥국밥
4 짱구식당
5 남해시장회센터
6 행복베이커리
7 화통
8 88회관
9 카페파밀리아
10 효야네삼계탕
11 동네커피
12 사천형제국밥
13 단골집
14 화덕안
15 동은기사식당
16 아구마을
17 초량정
18 밀양돼지국밥
19 회나무뒷고기
20 화랑갈비
21 동네수육

소도

쇠섬스토리펜션&
레스토랑

입현리

남해암소한마당

01
국밥

남해하면 멸치쌈밥이나 물메기, 회를 떠올리는 경우가 잦으나 그건 바다와 가까운 미조나 상주면에 가깝다.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남해읍의 경우는 이런 물고기보다는 오히려 뜨끈한 국밥이 친근하다. 좋은 소(송아지)를 제값에 팔려는 농가와 전국 중매인이 몰려드는 우시장이 남해읍에 있어 우시장 경매가 열리는 날이면 면 단위에서 우후죽순 소를 앞장세우고 읍으로 걸어 왔던 옛 풍경 때문이었을까. 소머리곰탕과 내장탕으로 유명한 한우큰솥집을 시작으로 읍 곳곳엔 돼지 국밥집도 제법 여럿이다. 국밥은 서민 음식으로 한 그릇 든든하게 서둘러 먹고 일어날 수 있어 남해읍내 국밥집마다 단골이 많다.

동네수육

형제국밥 | 섞어국밥 055-864-7796 망운로1-2
동네수육 | 수육전골 0507-1356-1743 화전로 60-19
왕창국밥 | 왕창국밥 055-864-7100 화전로 103
복례가마솥국밥 | 소머리국밥 055-863-5939 화전로96번가길 15-1
밀양돼지국밥 | 돼지국밥 055-864-4235 화전로38번길 22
한우큰솥집 | 소머리곰탕 055-864-4445 화전로 4

02
백반

갈수록 뜨끈한 집밥이 귀해지는 요즘이다. 여느 남도처럼 상다리가 휠 만큼 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지는 한정식은 아니지만 남해의 제철 신선한 별미를 밥상 위에서 만날 수 있는 '백반'의 매력은 담백 그 자체다. 남해는 해산물, 농산물 식재료의 천국. 시금치는 '보물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남해의 신선한 식재료와 제철 생선이 식탁에 오른다.

동은기사식당 | 김치찌개 055-862-5587 화전로길 59번길
단골집 | 백반정식 055-864-5190 망운로1-17
봉정식당 | 백반 055-864-4306 화전로 110
조은밥상 | 뼈뚝배기 055-864-3051 망운로 1-20
민속찜세상 | 순두부찌개 055-864-9797 망운로9번길 21
초량정 | 멸치쌈밥 055-863-1672 화전로38번길 28-4
초심 | 수육백반 055-864-7544 화전로38번길 27
미소담 | 생선구이 055-864-1655 화전로 152
모퉁이분식 | 돌솥밥 055-863-1026 망운로 10번길26
장복식당 | 정식 055-863-2960 화전로95번길 2

미소담

03
육고기

보물섬 남해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남해 마늘 · 한우 축제일만큼 남해 사람들의 한우 사랑은 각별하다. 화전 한우, 보물섬 한우 등 남해를 상징하는 이름을 붙이고 전국 경매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우로부터 시작된 고기 사랑이 자연스레 한돈(豚)으로 이어진 듯하다. 남해읍에는 지글지글 갈비나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생각나게 하는 화랑갈비처럼 단골이 넘쳐나는 고깃집도 많다.

화랑갈비

화랑갈비 | 돼지생갈비 055-864-2360 화전로38번길 21-1
가천숯불갈비 | 한우 055-862-6465 화전로 65-3
무쇠왕솥뚜껑삼겹살 | 삼겹살 055-864-0533 화전로96번나길 1
불막열삼 | 막창 055-863-7766 화전로38번길 26
회나무뒷고기 | 덜미살 055-863-0885 화전로38번길 23-1
춘천닭갈비 | 닭갈비 055-862-9908 화전로38번길 30-1
대구연탄막창구이 | 돼지막창 0507-1364-1989 화전로 123
영월목장 | 오겹살 0507-1352-9238 화전로 174
보물섬남해한우프라자 | 갈비살 055-863-9292 스포츠로34

04
중국 음식

인구 대비 중국음식점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남해읍 곳곳에는 중국음식점이 자주 보인다. 하지만 각각의 집마다 면발의 굵기와 해물 베이스가 달라 각자의 선호도가 있는 중국음식점이 제각각이다. 또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 배달을 어디 지역까지 해주는가도 집집마다 차이가 있다. 남해읍 외곽 마을인 선소마을이나 소입현, 평현마을 등 사는 곳에 따라 단골집이 달라질 수 있다.

화통

화통 | 유니짜장 055-863-9896 망운로 27 2층
샹하이 | 쟁반짜장 0507-1341-7679 스포츠로 74
양자강 | 해물고추짬뽕 055-863-0164 화전로43번길 7
바른짬뽕 | 바른짬뽕 055-864-8081 화전로 58-2
생생반점 | 잡채밥 055-864-3181 화전로 157
청포반점 | 짬뽕비빔밥 남해읍 화전로 144
부일반점 | 짜장면 055-864-2873 화전로122번가길 14

05
카페 & 브레드

남해의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 유자, 단호박, 시금치 등을 빵이나 음료로 내놓은 베이커리들이 많다. 로컬푸드 편집숍과 기념품, 프리미엄 어묵을 판매하는 카페 '바래온'도 핫플이고, 문화와 예술을 연결하는 카페와 전시관을 갖춘 '돌창고', 한옥을 개조하여 청년들의 소통공간과 지역민의 전시를 만날 수 있는 '청년센터 바라'도 커뮤니티 카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행복베이커리의 유자카스테라와 시금치 빵은 전국으로 소문난 맛있는 빵이다. 겨울 남해를 여행한다면 따뜻한 커피와 빵을 꼭 맛보길 추천한다.

동네커피

카페 라떼떼 | 베이글 0507-1348-0009 화전로78번길 19
동네커피 | 동네라떼 0507-1361-0874 망운로 1
파밀리아 | 디저트케이크 0507-1458-3604 망운로 20
아몬드 | 흑임자라떼 055-864-2398 화전로59번길 24
필즈커피 | 필즈크림커피 055-954-9808 화전로96번나길 27-9
제이라운지 | 샌드크림빵 055-864-8249 화전로78번길 3
행복베이커리 | 유자쌀만주, 시금치비스켓슈 055-864-8249 화전로 87

06
남해 별미

남해의 식재료를 활용해 각양각색의 별미를 만들어 내는 식당도 소개한다. 돈가스와 피자 등 젊은 여행객들도 좋아할 수 있는 별미를 꼭 집어 소개한다.

효야네 삼계탕

큰별돈까스

화덕안 | 파스타,화덕피자 055-862-8611 화전로 65-6
정식당 | 전복솥밥 055-862-2888 화전로122번가길 7
큰별돈까스 | 경양식돈까스 0507-1490-0274화전로38번길 9
효야네 삼계탕 | 삼계탕 055-864-3168 망운로9번길 1
아구마을 | 아구찜 055-863-3230 화전로38번길 28
언니네 | 언니김밥 055-863-2873망운로19번길 2

07
남해읍 외곽 맛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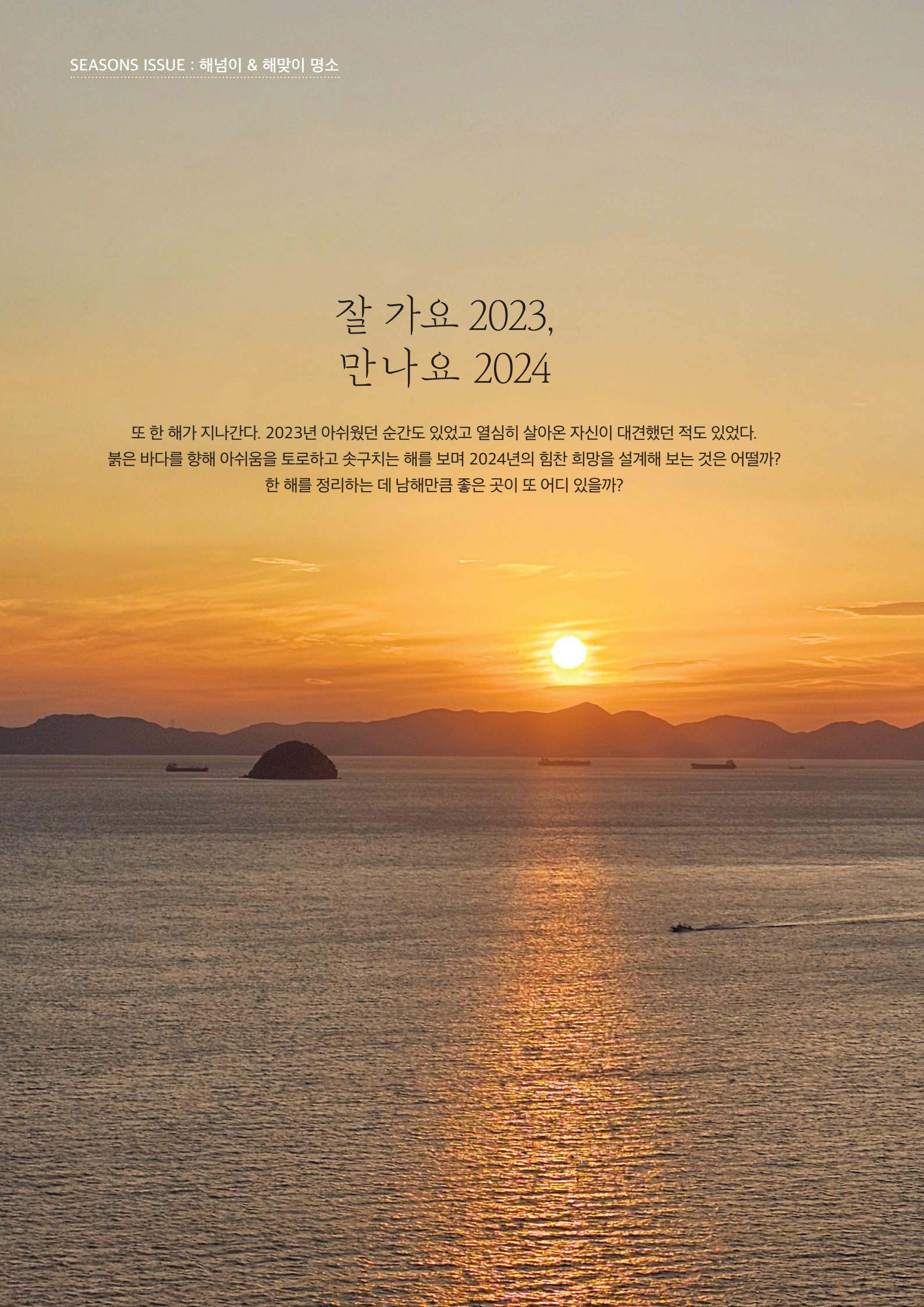
남해읍에서 살짝 벗어난 외곽에도 소문난 맛집이 많다. 쇠섬레스토랑&카페는 바다가 출렁이는 전망이 좋고, 선소횟집은 선소항의 분주한 어선들이 오가는 모습과 항구의 낭만을 배경으로 싱싱한 활어와 제철별미를 맛볼 수 있다. 암소한마당은 한우와 고기가 가득하다. 바다와 자연을 배경으로 여유와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외곽은 식당의 단체나 가족 단위에 안성맞춤이다.

코비

피자피네 | 두부리코타피자 파스타 0507-1430-4788 남해대로 2951-129
코비 | 스파게티 돈가스 070-7759-3427 당넘로217번길 28-3
암소한마당 | 한우스페셜 055-863-9999 강진만로 200-6
다나식당 | 동태탕 055-854-5170 남해읍 스포츠로 11
섬마을해물칼국수 | 해물칼국수 055-863-3688 스포츠로105번길 3-4

잘 가요 2023,
만나요 2024

또 한 해가 지나간다. 2023년 아쉬웠던 순간도 있었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이 대견했던 적도 있었다.
붉은 바다를 향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솟구치는 해를 보며 2024년의 힘찬 희망을 설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 해를 정리하는 데 남해만큼 좋은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여행팁

주소 남해군 남면 임포리

해를 품는 바다

사촌해수욕장

야트막한 야산들이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해변으로 백사장이 곱고 부드러워 바람이 불면 모래가 밀가루처럼 흩날리는 것이 특징이다. 300년 수령의 해송이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 이곳의 최고는 해넘이로, 바다 건너 여수로 넘어간다. 해가 넘어가면 호수 같은 바다는 온통 노을빛으로 물들게 되는데 해변을 거닐며 산책하기에 그만이다. 해가 넘어가면 여수 야경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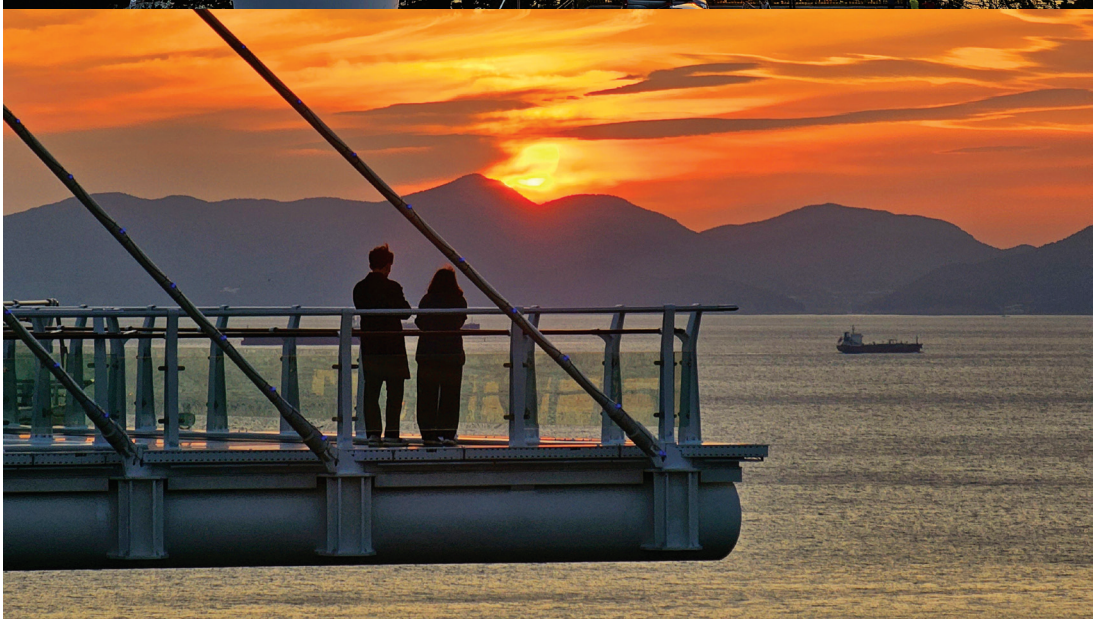
바다 위를 걷는 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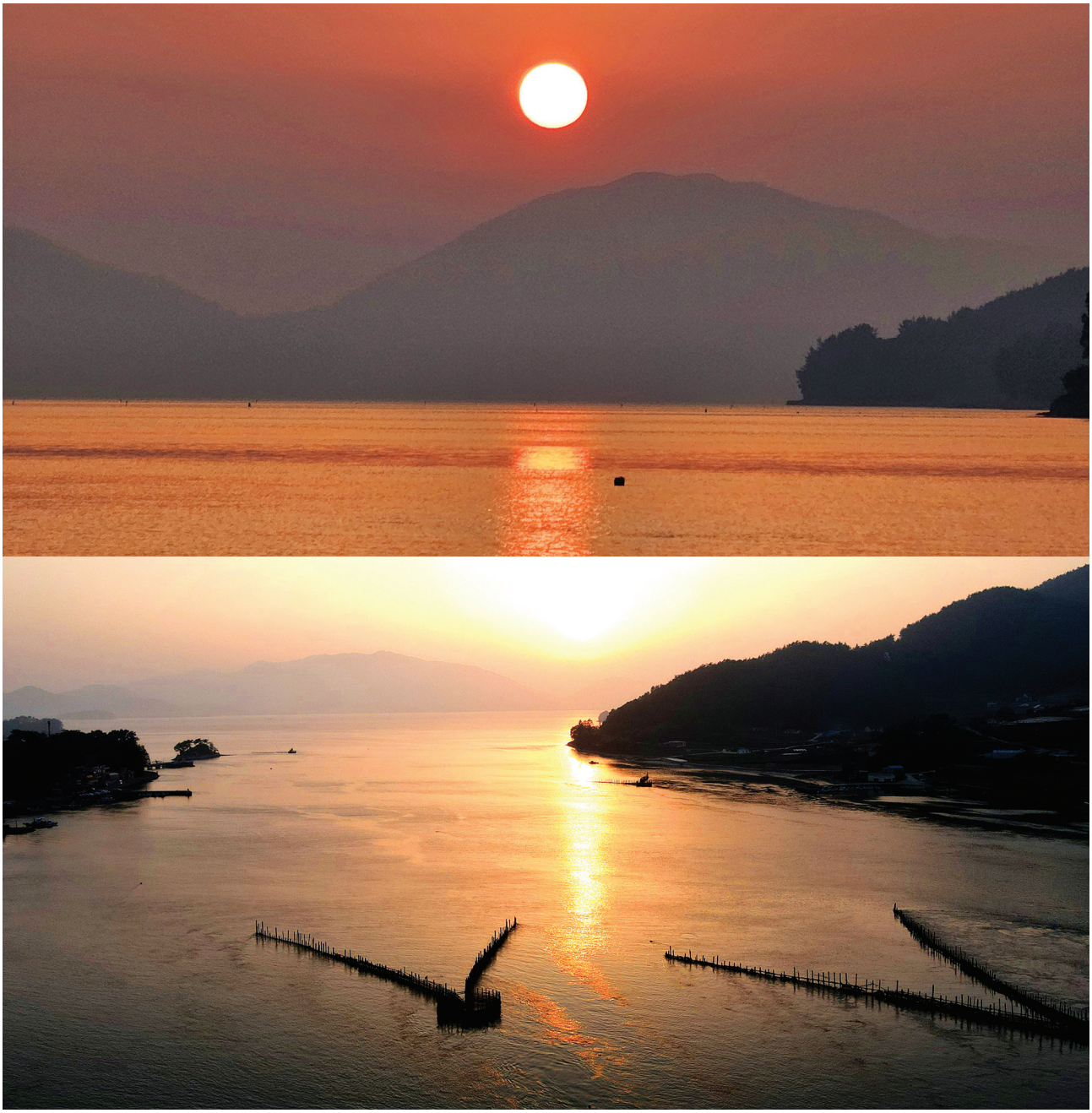
설리스카이워크

설리스카이워크는 주탑 높이만 36.3m 비대칭형 교량이다. 바다를 향해 돌출된 지형이어서 유리 바닥 위에 서면 발밑이 온통 바다다. 송정해수욕장은 물론 저 멀리 금산과 보리암까지 볼 수 있으며 바다 건너는 여수 돌산도다. 해질 무렵이 되면 전망대로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노을 풍경이 황홀하다. 올망졸망 섬들 사이로 고깃배가 분주히 움직인다.

여행팁

주소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303번길 176





여행팁

주소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 24

심장이 뜨거워지는

지족 노을

남해와 창선을 연결하는 창선교에 서면 망운산으로 해가 넘어간다. 하늘과 바다가 불타오르는 명품 노을이다. 지족해협은 죽방멸치와 미역으로 유명한데 물살이 세 물소리가 강렬하다. 특히 학익진을 펼친 듯한 죽방렴은 노을을 배경 삼아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남해읍 쪽으로 해변 드라이브를 하면 섬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장구섬이 나타나는데 이곳 역시 일몰 명소다. 물이 빠지면 갯벌은 온통 황금빛이다.

소원 품은 남해 금산

보리암 해맞이

남해 금산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영험한 산으로 손꼽힌다. 기암괴석이 산 전체를 두르고 있어 금강산을 빼닮았다 하여 소금강이라 불린다. 태조 이성계가 이 산에서 백일기도 끝에 조선 왕조를 개국하게 되었다니 더욱 신성하게 보이는지도 모른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기도 명소 보리암은 일출 포인트로 멀리 다도해의 섬이 점을 찍어 놓은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가슴 떨리는 장면이다.

☀ 여행팁

주소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여행팁

주소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41

활기찬 생의 미소

미조항 해맞이

미조항 방파제에 서면 두미도 욕지도 일대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감상할 수 있다. 새벽에 분주히 움직이는 어선을 카메라 앵글에 놓고 찍으면 활기 넘치는 사진 한 컷은 건진다. 미조항에서 설리 가는 해안 길인 미송로에서 내려다본 일출도 장관이다. 미조항과 방파제가 만들어 내는 멋진 그림을 감상하며 희망을 써 본다.

여행팁

주소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 74-19

다정한 숲

물건리방조어부림 해돋이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는 물건리방조어부림이란 다정한 숲이 있다. 해안을 따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든든한 녹색 띠를 이루고 있다. 이 숲의 역사가 무려 300년. 바닷가에 나무를 심어 풍랑을 막고 녹색을 좋아하는 고기떼를 끌어들이고자 조성했다. 해변은 조약돌. 아침 햇살이 비치면 보석처럼 반짝인다. 바다 건너 수우도, 사량도, 두미도로 아침 해가 섬 사이로 솟아오른다. 근처 엘림마리나리조트에서는 요트와 방파제 사이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겨울에도 따뜻한 복합문화공간

따뜻한 남해바다로 여행을 갔다가 감성 충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복합문화공간을 찾아보자. 남해는 이터널저니를 비롯한 복합문화공간이 많다. 지난 9월에 개관한 남해어린이도서관과 재생사업 일환으로 탄생한 남해각. 스페이스 미조 등 문화와 공간이 어우러진 곳에서 차도 마시고 음악과 그림을 감상할 수도 있다.

남해 화전어린이도서관

남해읍에 남해군 최초로 어린이도서관이 생겼다. 2023년 9월 4일에 공식 개관했다. 화전어린이도서관은 ㅁ자 모양의 건축물로 아이들이 창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중앙에는 정원이 자리하고 아이들이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서 있다. 화전어린이도서관은 화전도서관 내에 있던 어린이도서관을 확장시켜 만든 공간이다.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공간은 독서 계단이다. 이곳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꺼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부모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일반 책뿐만 아니라 읽어주는 책, 영어책 등 다양한 책들이 많다. 또한 1층에는 키즈놀이방이 있어서 어린 영유아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이다. 비치된 도서도 어린이책/ 초등서적이 나눠져 있어서 아이들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곳곳에 책도우미 직원들이 있어 아이들이 책읽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남해화전어린이도서관은 매주 화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휴관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남해 화전어린이도서관

위치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

이터널저니

아난티 남해 내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터널저니는 삶의 일부분인 여행, 철학, 인문, 식음, 예술에 대한 고찰과 다양해진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산, 남해, 가평 3개 지역에 만들어졌다. 1층에는 레스토랑과 식료품관이 있다. 평소에 쉽게 접하기 힘든 식료품들, 남해의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한눈에 보이는 오픈 키친과 바로 앞에 펼쳐진 남해의 풍경이 눈과 입을 모두 충족시켜준다.

2층으로 올라가면 서점과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을 즐길 수 있다. 치유와 영감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도서, 작품, 아이템들로 채워져 있고,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키즈 존도 있다. 인문학적 즐거움을 더하는 서점과 40여 개의 브랜드 매장을 통해 '이터널저니'만의 정체성을 인문학적 문화를 곁들여 즐길 수 있다.

이터널저니

위치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1179번길 40-109
운영시간 09:00~22:00 1층 레스토랑 11:00~21:00 (20:30 주문 마감)
문의 1층 레스토랑&식료품관 055-860-0688
2층 서점&키즈존&라이프스타일 존 055-860-0689
주차 자체 주차장 이용

보물섬식물원

남해읍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연중무휴 상시 볼 수 있는 온화한 식물원이 있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바로 뒤에 보물섬식물원이 있다. 남해를 겨울 여행으로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 추운 겨울날에도 실내 데이트를 즐길 수 있고, 예쁜 꽃들과 정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다. 식물원 내부에 다양한 포토존도 많다. 식물원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곳은 물의정원과 이끼정원이다. 이곳은 곳곳에 포토존이 있고 꽃들이 가득해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다. 그리고 식물원 입구에 있는 다육정원은 평소 보기 힘든 식물들과 열대식물이 가득하다. 신기한 다육이와 선인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좋다. 유리온실이어서 하늘이 훤히 보이고 온실 속에서 크는 식물들이 그림처럼 예쁘다. 남해 겨울여행 필수 코스로 추천한다. 보물섬식물원에서 따뜻한 햇볕과 향기로운 정원에서 데이트를 즐겨보자. 유리온실 1동, 부속관리동 1동, 야외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리온실에서는 다육식물 선인장 등 다양한 식물을 관람할 수 있고, 야외정원은 야생화와 화초류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곳곳에 쉼터가 있어 가족 단위 관람이나 학생들의 견학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보물섬식물원은 평일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항상 개방하고 있고 입장료도 무료다. 자세한 이용 문의는 남해농업기술센터로 하면 된다.

보물섬식물원

위치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20
운영시간 09:00~17:30
문의 055-860-3937

남해탈공연박물관

남해탈공연박물관은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다. 추운 겨울에도 실내는 따뜻하고 어린이라면 탈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고, 2층 전시관에서 다양한 탈과 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 올 겨울에는 아시아의 탈이 기획 전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그림자공연과 탈이 특별 전시되어 있고, 몽골, 중국, 티베트, 일본 등의 전통 탈이 테마별로 전시되고 있다. 공연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린다. 박물관 마당에서 공연하기도 하고, 전시관 안에서 인형극 같은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원래 이곳은 초등학교를 개조해서 만든 공간이다. 그래서 넓은 잔디마당과 주차장이 있다.

☀ 남해탈공연박물관

위치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12
운영시간 09:00~18:00
문의 055-860-3790
가격 입장료 성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남해의 숨겨진 매력 가득
구석구석 골목 산책

남해의 겨울 여행에 낭만을 더하고 싶다면 숨겨진 골목 산책을 즐겨 보자.
정겨운 남면 엄마길, 멋진 바닷가 숲길 산책을 즐기는 장항숲 거리와 서상숲길,
레트로 감성이 가득한 지족 구거리까지 한적하고 색다른 여행 감성을 충전할 수 있다.

01

어머니의 마음

남면사무소 앞 엄마길

남해 지도를 보면 본섬 모양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따사로운데 그런 마음처럼 따스한 거리가 있다. 남면사무소 앞, 일명 '엄마길'이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 준 것 같은 주란식당의 오봉밥상. 남해의 식재료로 만든 백반 한 끼면 든든하다. 칼국수로 유명한 홍덕정은 특히 해물파전이랑 곁들이기 딱 좋다. 빛바랜 간판을 가진 옛날 다방에서 다방 커피를 홀짝 마셔도 좋겠다. 젊은 세대들이 엄마길을 찾는 이유는 포토존이 될 만한 가게들이 많아서다. 그중 하나인 카페 백년유자는 남해 대표 먹거리인 유자 음료를 시음할 수 있다. 창가 자리와 보름달이 대표적인 포토존. 대충 찍어도 인생샷 한 컷은 건진다. 정갈한 고택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앵강마켓은 고풍스러운 건축미가 뛰어나며 빈티지 테이블과 가구가 여백의 미를 강조했다. 가장 인기 있는 자리는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창가 자리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보리 커피로 팥양갱, 유자양갱과 곁들여 먹으면 더 없이 좋다. 산뜻한 하늘색 외관이 인상적인 브레드멜은 멸치빵과 마늘빵을 맛볼 수 있는 빵집이다. 남해 대표 특산물인 죽방멸치와 마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빵으로 매일 한정 수량만 구워 낸다.

또한 남면공설운동장 맞은편 '일식면예찬'은 라면과 카레덮밥을 잘한다.

백년유자 옆 사잇길로 올라가면 홍덕정원이 나온다. 대숲이 뻗은 길이 산책 삼아 찾기 좋다. 끄트머리에 율곡 이이의 향을 계승하고 제례를 위해 세운 사당인 율곡사가 자리하고 있으니 함께 거닐기 좋다.

☀ 골목팁

위치 남해군 남서대로 778 남면사무소
전화 055-860-8251

02

장항숲 거리에 더해진
서상숲길 이색 공간

골목팁

위치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1517번길 44, 헐스밴드
전화 0507-1310-9332

남해의 매력 중 하나가 바닷가의 마을 숲이다.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바람과 파도를 막는 방풍림 역할까지 한다. 돌탑 2기는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담아 세웠고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상징 조형물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50년생 이상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바닥은 올망졸망 자갈밭으로 해 질 무렵 노을이 아름답기로 소문났다.

오늘날 핫플이 된 장항숲 거리의 첫 출발이 된 카페 헐스밴드. 논-뷰로 SNS핫플로 등극한 이곳에서는 페루산 유기농 커피와 화덕 피자를 맛볼 수 있다. '바다에서 제일 가까운 사진관'으로 피력하는 '파라다이스 베이'에서는 MZ세대들이 열광하는 인생네컷을 찍을 수 있어서 인기다. 옛 수영장을 개조한 수제버거집 '더풀(the pool)' 옆 '남해에서 만나는 인도'를 슬로건으로 건 '남해스떼'에서는 인도에서 살았던 주인장이 인도풍 소품과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일행 중 아이가 있다면 장항숲에서 북쪽으로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서상스포츠파크를 추천한다. 야구장과 축구장, 놀이터는 물론이며 스포츠파크호텔 내 키즈 카페를 들렀다가 정원 산책을 해도 좋다. 야외 조각 전시를 보다가 개울 하나를 건너면 서상숲이 펼쳐진다. 소나무 숲을 따라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베이지색 건물 3채가 이웃처럼 마주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풍경. 타코와 잠봉 파스타를 맛볼 수 있는 하몽을 파는 정육점이자 생활 기념품 숍인 '때깔로 무역'과 미국에서 남해로 온 부부가 운영하는 '더 코브'는 아메리칸 스시롤 전문점이다. 유자와 피스타치오 등 원재료가 좋은 젤라또를 판매하는 '럭키웨더젤라또'까지 서상숲 속 이색 공간이 반갑다.

03

낭만적인 영화 세트장 같은
지족 구거리

☀ 골목팁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10, 삼동우체국
전화 055-867-2005

남해에서 가장 낭만적인 거리를 손꼽으라면 지족 구거리. 마치 7080년 드라마 세트장을 옮겨 놓은 듯하다. 삼동우체국부터 지족반점까지 350m 대로변에는 옛날 다방, 금은방, 사진관 등 레트로 감성이 물씬 묻어 있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1973년에 문을 열었다는 뉴스타 사진관은 옛날 카메라와 빛바랜 사진으로 가득하다. 그 옆에 밝은 달빛 서점은 갤러리를 겸한 책방으로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 건너편 정다방은 40년 역사를 가진 다방으로 입구에 '오리지날 옛날 다방'이라는 글씨와 빨간 문이 정겹게 보인다. 70년대 의상 체험이 재미있는데 새마을복을 입고 쌍화차를 마시면서 추억을 회상해 보는 재미가 있다. 보자기로 싼 보온병이 있어 커피 배달 체험도 해 볼 수 있다.

옆의 '아마도 책방'은 온종일 책을 읽고 싶을 정도로 책의 온기가 가득한 곳이다. 건너편 '공동작업장'은 남해 유자 음료를 맛볼 수 있으며 아기자기한 소품이 시선을 끄는 일상의 작은 기록들로 즐비하다.

지족 구거리의 끄트머리에는 독특한 경관의 소품 가게 초록스토어가 있다. 호텔 로비를 연상시키는 바닥에는 고풍스러운 타일이 깔려 있으며 은은한 조명에 아기자기한 소품을 감상하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창밖의 쏟아지는 햇살을 감상하는 재미도 누리시길.

지족 구거리는 또한 **독일마을**까지 **차량 15분** 정도 걸리는 삼동면 면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9곳**의 음식점, **4곳**의 카페, **7곳**의 서점/공방/SHOP, **8곳**의 주민 생활가게와 지족 시장, 행정·복지·편의시설 등이 나즈막하고 아담하게 담겨 있습니다. :)

안내도를 사진에 담아서
더 알차고 즐겁게 여행하세요 ♥

※ 안내도의 이미지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은 구거리 **상인 자치 모임** 또는 **초록스토어**로 연락주세요. :)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불꽃

영화 〈노량_죽음의 바다〉 그 현장을 찾아서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영화 〈명량〉, 〈한산〉에 이어 3번째이자 종결편인
〈노량_죽음의 바다〉가 개봉했다. 퇴각하는 왜군을 완벽하게 섬멸한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를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는데
그 현장이 바로 남해대교와 이순신순국공원 일대다.
노량해전의 배경과 치열하고도 가슴 벅찬 전투현장을 찾아보자.

임진왜란의 주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자 일본은 퇴각을 결정한다. 한편 사천성 전투에서 시마즈(백윤식 분)는 왜군 7천 명으로 4만 명의 조명연합군을 물리쳤고 칠천량해전에서 조선함대를 물리친 최강자로 기세가 등등했다. 이들은 순천왜성에 고립된 고니시를 구하고 본국으로 가기 위해 출전을 감행한다. 이때 이순신(김윤석 분)의 비장한 목소리가 들린다.

"반드시 놈들을 열도 끝까지 쫓아서라도 기어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

적선의 규모는 무려 500여 척. 조선의 수군은 판옥선을 포함한 200여 척. 그러나 명나라 함선도 300여 척. 양쪽의 전력이 비슷해 물러날 수 없는 한판이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작전 회의 "남해 노량에서 적들을 맞이할 것이요."

노량에서 시마즈 왜군을 먼저 격퇴하지 않으면 순천의 고니시 왜군에게 협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1598년 11월 19일. 새벽 2시. 사천을 떠난 시마즈 함대는 오늘날 남해대교가 있는 노량해협을 지나가게 된다. 조명연합군은 이곳에 매복해 야간 기습공격을 감행한다.

이순신 장군이 주로 쓰는 병법인 원거리 발포가 아니라 야간 근접전을 벌인 것이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달라붙었다. 한 명이라도 더 죽여 왜군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장군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바람도 조선 편. 겨울 북서풍이 불어 일본의 배가 불길에 휩싸이자 노량해협을 빠져 나와 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이 바로 관음포. 왜군은 그곳이 너른 바다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관음포만이었다. 그야말로 독 안에 갇힌 쥐였다. 마지막 목숨줄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순신 장군은 북을 치며 총공세를 명하고 적진에 뛰어든다. 왜군은 탈출하기 위해 발악을 하는데 이때 왜군의 흉탄이 이순신 장군의 가슴을 관통한다.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조선 수군은 다시는 왜군이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싸웠다. 기나긴 전투가 끝났다. 왜선 500여 척 중에 50여 척만 살아 돌아갔으니 엄청난 승리였다. 이렇게 7년의 임진왜란은 종말을 고했지만, 우리에게는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잃고 만다. 조선의 역사상 이렇게 극적이고 안타까운 전투가 또 있을까? 영화 속 감동과 여운을 되새기고 싶다면 남해의 노량의 현장을 가보라.

역설적이지만 지금은 너무나 평화롭고 조용한 관음포다. 장군의 죽음 덕에 우린 평화를 얻었다. 이락사 입구에는 '전쟁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는 입석이 서 있다. 그 뒤쪽이 이락사. 거룩한 별인 이순신이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다. 현판은

☀ 골목팁

위치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남해군관광안내센터 1588-3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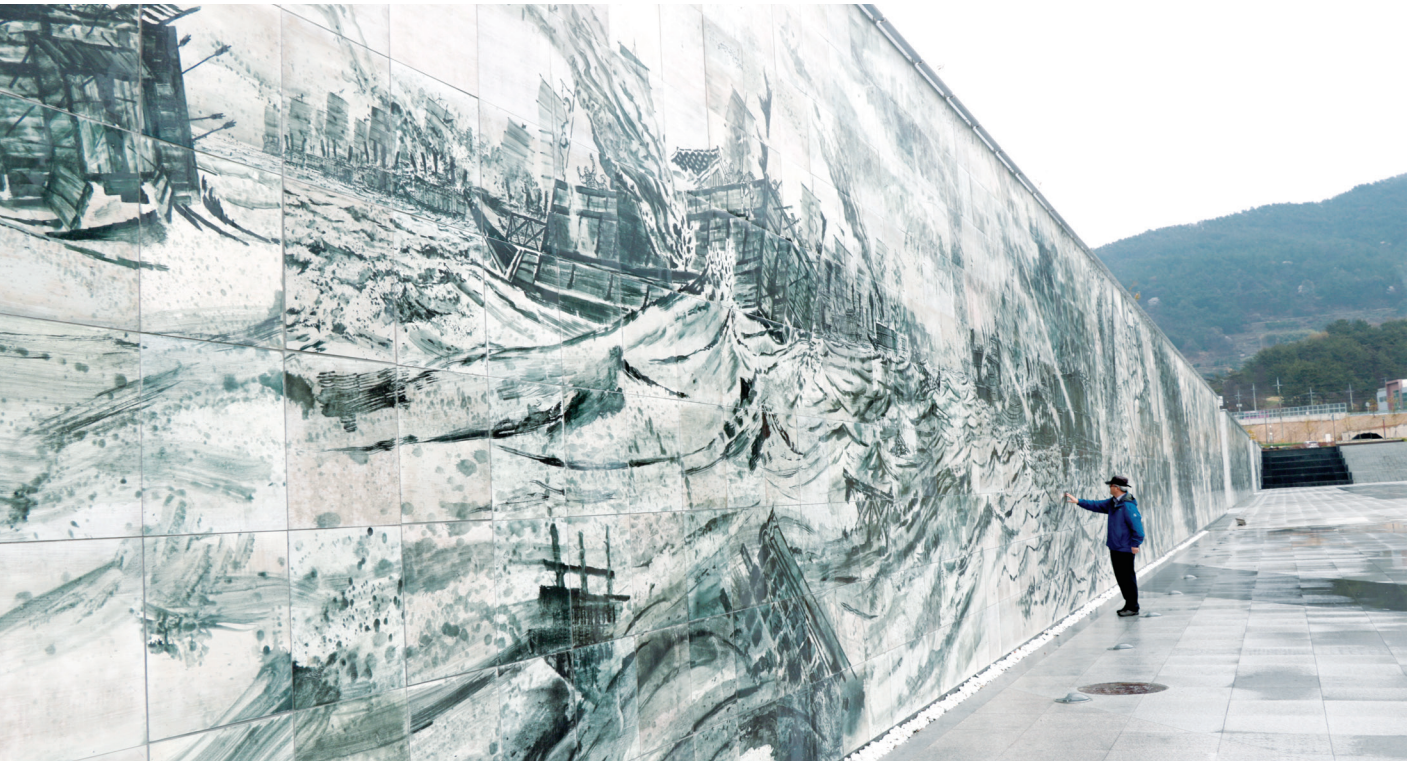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글씨다.

800m 길이의 육지가 바다로 툭 튀어나왔는데 그 끝자락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첨망대가 서 있다. 누각의 그 앞바다가 동북아 최대 해전인 노량대첩의 현장이며 또한 이순신 순국의 바다다. 충무공이 죽기 전부터 이 동네는 '이락포(李落浦)'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하니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공의 죽음을 예언한 모양이다.

이락사를 빠져나오면 거북선 모양을 한 이순신영상관이 자리하고 있다. 3D 돔형 입체영화관으로 노량해전의 해상전투 과정을 웅장하고도 실감 나게 감상할 수 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순신 순국공원.

광장에는 판옥선 모양의 석조물이 서 있고 한가운데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바다를 응시하고 있다. 최고의 볼거리는 높이 5m, 길이 200m의 대형 도자기 벽화다. 가로 50cm, 세로 50cm 네모난 도자기를 3천797장을 구워 일일이 붙여 벽화를 완성했는데 세계 최대 규모란다. 가마에 구우면 도자기가 변형되고 뒤틀리기에 그 2배가 넘는 8천 장 넘게 도자기를 구워내야 할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다고 한다. 벽화는 출정, 승리기원, 전투, 순국 등 노량해전의 모습을 담고 있으니 가슴 벅찬 장면을 그려보기 딱 좋은 장소다. 순국의 벽 뒤쪽 공원에는 충무공과 임란에 대한 생생한 스토리를 만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의 칼 조형물뿐 아니라 총알에 뚫린 심장 등 장군의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물이 전시되어 있다. 참 조망데크에서 바라본 해넘이도 좋다.

남해대교 옆에 위치한 충렬사는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3개월 동안 모셨던 곳으로 지금은 가묘가 조성되어 있다. 이충무공 묘비는 우암 송시열이 짓고, 송준길이 썼다고 한다. 충렬사 아래 바다로 내려오면 거북선을 복원해 놓아 관람할 수 있다. 그 뒤로 노량해협이 유유히 흘러간다.



남해는 겨울에도 초록이다

조영호(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

남해에 겨울이 찾아왔다. 남해의 겨울은 하얀 겨울이 아니다. 초록빛 겨울이다. 들판도 초록 초록, 바다는 푸름 푸름, 파랑이다. 겨울이 싱싱하다. 어쩌다 하얀 눈이라도 내리면 남해는 한 폭의 그림이 된다.

남해각을 따라 남해에 오면 초록빛이 반긴다. 초록이 가득한 시금치다. 들판마다 시금치 물결이다. 강진만, 앵강만, 동대만 해안도로 따라 시금치가 바다와 만난다. 겨울에 남해에 오면 밥상마다 시금치가 있다. 달고 아삭하다. 서리가 내리고 서해안에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는 더 단맛이 난다.

시금치가 남해 겨울을 달달하게 한다면 마늘은 남해 겨울에 알싸한 맛을 더한다. 시금치가 진한 초록이라면 좀 더 연한 초록이 눈에 띈다. 마늘이다. 남해 마늘이다. 남해 마늘은 겨울에 뿌리를 내린다. 봄에 싹을 틔우고 성장해 6월에 수확한다. 시금치와 마늘이 만나 남해는 초록빛 겨울이 된다.

남해의 겨울은 바람도 싱그럽다. 겨울 바다 칼바람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남해는 따뜻하다. 겨울에 내리는 남해의 비는 섬과 섬을 이어준다. 구름이 선이 되어 다리를 만든다. 섬과 섬을 잇는 구름의 이름은 꽃구름이다.

남해 겨울 여행은 온기가 가득하다. 크고 작은 카페, 빵집 창문은 남해의 산과 바다를 담아 그림을 만든다. 카페마다 찾는 발길이 반갑고, 들리는 목소리는 정겹다.

남해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 남해각에도, 남해읍에도, 독일마을에도 크리스마스가 붉을 밝혔다. 남해각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는 남해대교와 어우러져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온 것처럼 이국적 풍경을 만든다. 남해읍에는 화전별당 건물이 크리스마스 포토존으로 불을 밝혔다. 독일마을 광장은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을 닮았다. 독일마을은 물건항과 이어져 겨울도 아름답다.

겨울에는 남해 외갓집 마당이 따뜻하다. 9,900원에 남해 외갓집 상품을 예약하면 마음 좋은 외할머니가 집 마당을 내어준다. 캠핑용품도 빌려준다. 붉게 달궈진 불판에 갈치라도 구우면 남해 겨울은 더 맛난다.

남해 노량, 관음포가 겨울 영화관에 나타났다. '노량: 죽음의 바다', 1598년 12월 16일(선조 31년 음력 11월 19일),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쟁, 위대한 승리의 전쟁, 노량해전이 영화로 찾아왔다. 이순신 장군이 그립고 보고 싶은 겨울이다. 영화를 보고 남해를 찾자. 겨울 여행도 남해다.

남해관광 안내 정보

남해군 문화관광과	055-860-8601
남해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www.namhae.go.kr/tour/
남해군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mhae_gun
남해군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treasure.island.namhae
남해군 공식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mhaegun
남해군 공식 유튜브	www.youtube.com/user/namhaegun
남해문화관광 스마트채팅	www.namhae.go.kr/SmartChat/chat.html
남해관광문화재단	055-860-3690 / https://namhaetour.org
남해관광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th_ntcf
남해관광문화재단 공식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travelnamhae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10:00~17:00)

남해관광 콜센터	1588-3415
남해유배관광안내소 (월 휴무)	055-864-4025
가천관광안내소	055-863-3893
창선관광안내소 (주말운영)	055-867-5238
독일마을 관광안내소	055-867-8897
남창선대교타운 관광안내소 (주말만 운영)	055-867-5238
문화관광해설사	055-860-8605 (남해군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남해각 여행자 플랫폼 (10:00~18:00, 월요일 휴무)

055-864-1905 I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남해대로 4216
여행객들이 남해 여행의 정보를 얻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교통정보

남해공용터미널	1688-7102
남흥여객 (시내·외 버스)	055-863-3501
남해택시관광가이드	055-863-8585

www.namhae.go.kr/tour/(남해문화관광 홈페이지 → 여행가이드 → 관광안내, 2일 전까지 신청)

발행처 남해관광문화재단

발행일 2023년 12월 20일

기 획 남해관광문화재단 미래콘텐츠사업팀(055-864-4509 / https://namhaetour.org)

제 작 (주)상상콘텐츠그룹 (02-963-9891)

※ 이 책에 실린 모든 정보는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꽃섬 남해